

맨 나중엔 난 자 같은 내게도

(고전 15:8-10)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선전시대입니다. 교회들도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내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나타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우울증들도 있습니다. 왜 이러합니까? 악한 원수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이들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용 전략 중의 하나가 과거를 묻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 때문에 좌절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용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좌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으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고 과거 때문에 좌절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을 성도들이 받을 때 먼저 상식과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식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자책하며 좌절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과거에 묶여 현재에 우울하게 산다면, 이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정말로 과거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면 과거 때문에 후회한다면 해야 할 것은 현재에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모든 사도 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동력, 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온 관심을 가집니다. 현재의 여러분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문제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강하기 보다는 자아에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보다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나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에 충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족하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맨 나중엔 난 자가 첫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현재를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